

서울 용산구 이촌동

‘트로트계 전설’... 신곡으로 현대인 고달픔 달래준다

충북 보은에서 태어난 태진아(본명 조방헌)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에 조금이라도 집안에 도움이 되기 위해 14세 때 상경해 구두땀이 중국집 배달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다.

훗날 아르바이트 도중 일어났던 긴박했던 순간을 회상하며 “중국 음식 배달을 가던 중 배가 너무 고파 손님이 만두 2개를 몰래 꺼내 먹었다. 이후 손님이 왜 만두가 10개가 아니라 8개밖에 없는지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방장님 생일이라 고기를 많이 넣은 8개짜리를 가지고 왔다는 말로 위기를 모면했다”며 “머칠 뒤 그 손님이 중국집을 찾아와 돌발 행동을 들켰다. 손님이 떠나고 주방장에게 호되게 혼났다”고 굶주렸던 시절의 이야기를 생생히 전했다.

그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노래를 흥얼거리다 손님으로 들른 작곡가 서승일이 실력을 알아보면서 1972년부터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73년 ‘내 마음 급행열차’로 데뷔해 ‘추억의 푸른 언덕’을 통해 1974년 연말 10대 가수상 신인상을 휩쓸었다. 하지만 이후 발표한 ‘못 잊을 건정’ ‘잊지는 못 할거야’ ‘보내는 마음’ 등의 곡들은 성공하지 못해 실망감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활동도 중단했다.

그러다 미국에 먼저 이민이 있던 가수 남진에게 이옥형 씨를 소개받아 결혼한 뒤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귀국해 ‘흔 자랍니다’와 ‘정 때문에’를 발표하며 가수

생활을 재개했다. 이듬해 아내를 모티브로 만든 곡 ‘옥경이’를 수록한 앨범이 150만 장 판매를 기록하며 밀리언셀러에 올라 재기에 성공했다.

이후 ‘겨울도 안 보는 여자’ ‘미안 미안해’ ‘동반자’ 등 발표하는 곡마다 연말 히트를 치면서 오랜 무명의 설움을 딛고 스타가수로 등극했다. 그중 1990년 ‘겨울도 안 보는 여자’는 당시 최고의 가요 프로그램인 ‘가요 톱 10’ 5주 연속 1위에 올랐고 후속곡 ‘미안 미안해’는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00년 발표한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제11회 서울가요대상에서 본상·전통 가요상을 받는 등 흥행을 이어갔다. 2014년 아들 이루와 함께 작사·작곡한 ‘동반자’도 성공하면서 ‘전국 톱 10 가요 쇼에서 무려 19주 동안 1위를 차지하는 전성기를 맞았다.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현철·송대관·설운도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이자 ‘트로

트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매김한 태진아는 지난해 ‘서울간 내남’으로 또 한 번 신드롬을 일으켰다.

‘서울간 내남’은 가요무대·열린음악회·더 트롯쇼·뮤직뱅크·음악중심·인기가요 등 다양한 음악 방송을 석권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았다. 구성진 보이스와 함께 ‘서울로 떠난 그리운 내남’을 위해 진달래꽃·개나리꽃을 한아름 꺾어서 너 오실 때 안겨드리겠다라는 가사가 듣는 이에게 애절함과 설레임을 안겼다.

음악 활동 외 가족사도 관심이다. 5년 전 아내의 치매 사실을 털어놓아 안타까움을 자아낸 그는 “아내의 치매 진행 속도가 부쩍 빨라졌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말 “치매 진행이 멈춰 정말 감사하다”고 좋은 소식을 알렸다.

한편 태진아는 23일 신곡 ‘친구가 술 한잔하자’를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친구가 술 한잔하자’는 박진



태진아

가수

진안엔터테인먼트

감 넘치는 리듬과 격정적인 브라스 섹션과 그의 허스키한 사운드 참법과 조화를 이루는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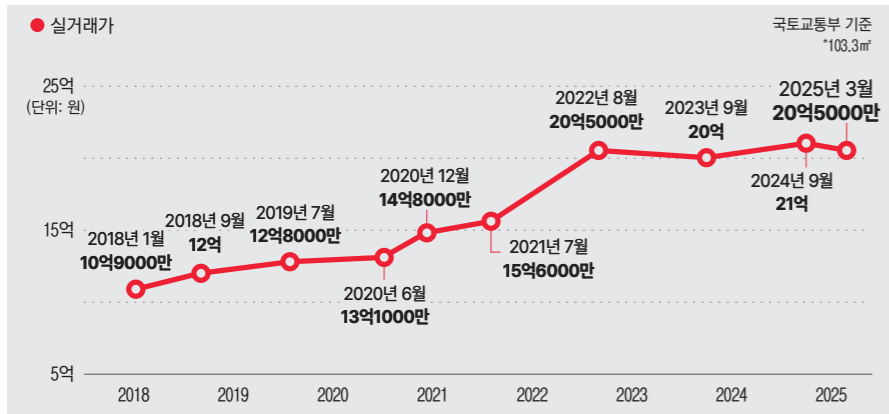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설렘과 흥분되는 기분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세상이 힘들음을 모두 잊고 친구와 술 한잔 하고 싶은 현대인들의 고달픔을 잘 대변해 주는 가사가 인상적이다. 앨범에는 ‘당신의 눈물’ ‘애인’ ‘사랑은 아무나 하나’ ‘가버린 사랑’ 등 주옥같은 히트곡들도 수록됐다.

4월 첫째 주부터 신곡으로 각종 음악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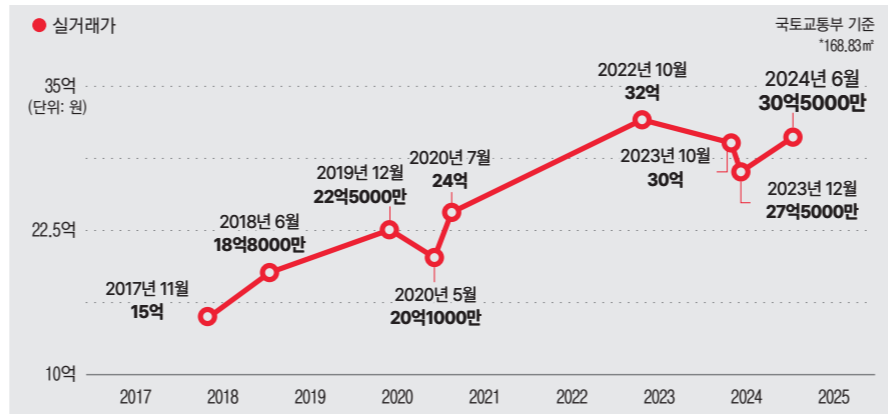
송에 출연해 활동을 이어가는 태진아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LG한강자이(사진) 한 호실을 2001년 12월 매입했다. 공급면적 264.17㎡(약 79.91평)·전용면적 210.01㎡(약 63.52평) 규모로 최근 실거래가는 올해 2월 매매된 50억2000만 원이다.

LG한강자이는 최고 25층·10개동·656가구 규모로 한강공원 근처에 있어 우수한 조망권과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촌한강공원과 용산가족공원 등 대형 녹지공간이 도보 거리에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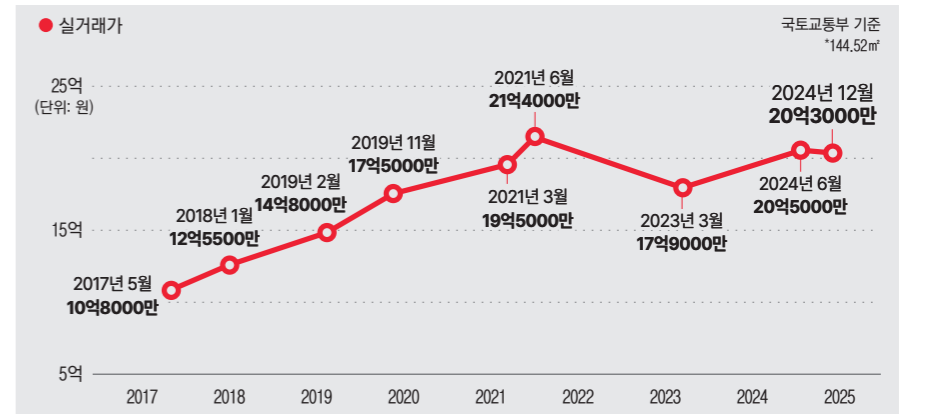
현대한강



이촌삼성리버뷰



이촌우성



이대훈

전)NH농협은행장



하는 ‘소비자만족(CS) 3.0’을 선언했다. 이를 통해 실적 개선을 이뤄 2018년 12월에 이어 2019년 12월 임기를 연장해 농협금융지주 계열사 사상 처음으로 3연임에 성공했다. 재임 중 농협은행의 실적을 2배가량 끌어올려 뛰어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대훈 전 NH농협은행장은 동남종합고와 농협대 협동조합과 졸업하고 1985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입사했다. 2004년 NH농협은행 경기도청출장소장·2009년 서수원지점 지점장을 거쳐 프로젝트 금융부장·경기영업본부장·서울영업본부장, 농협상호금융 대표 등을 지냈다. 영업본부장 재임 시절에 실적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면서 탁월한 영업력을 자랑했고 상호금융 대표 시절에는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경영 능력도 갖췄다는 평을 받았다. 2017년 12월 제4대 NH농협은행장에 선임돼 기존 고객 만족의 개념을 뛰어넘어 고객 중심의 혁신적 서비스를 추구

박흥권

전)한화종합화학 사업부문 대표이사



문가로 평가받은 그는 “PSM과 토마슨에너지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 혼소발전 사업을 전개해 그룹의 친환경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기업의 수소 혼소발전 기술의 빠른 안착을 주도했다.



박흥권 전 한화종합화학 사업부문 대표이사는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와튼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10년간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에서 근무한 뒤 2004년 기획조정실 전략기획담당으로 두산중공업에 입사했다. 전략기획담당·영업관리총괄을 거쳐 2013년부터 6년간 터빈·발전기BG장을 지냈다. 2020년 10월 한화종합화학 사업부문 대표에 선임된 후 2021년 7월 한화종합화학이 지분 100%를 인수한 가스터빈 기업인 미국 PSM 초대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가스터빈과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 역량을 갖춘 전

모종화

전)병무청장



“병역 의무자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강한 안보 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한 병역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 행정을 구현하자”고 말했다. 2008년 대통령 표창을, 2012년에는 보국훈장 국선장을 받았다.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육군사관학교 36기 입관 후 국방대 대학원 국방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합동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영관급 군사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창설된 합동군사대 초대 총장을 지냈다. 야전에서 화력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그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인사사령관을 맡아 육군 인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인사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17사단 포병연대 연대장·군단장·31사단장을 역임했다. 2019년 12월 제25대 병무청장에 취임해 공정한 병역 문화 정착을 강조하며

대동택견 전수자 과정 1기 모집 안내

1. 택견 어원

택견의 어원은 태갈이다. <태>는 ‘태어나다·중생하다’는 뜻이고, <갈>은 ‘가르치다·수련하다’는 뜻으로 이를 합치면 ‘인간에서 신으로 중생하는 수련’을 말한다. 씨름이 오랜 세월 동안 씨갈 → 씨가름 → 씨겨름 → 씨름으로의 용어 변천사가 있었듯이 택견도 태갈 → 태가름 → 태겨름 → 태견(태견) → 택견으로의 용어 변천사가 있었다.

2. 대동택견 소개

- 태고사에 나오는 천제 환인이 아들 환웅에게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하도록 천부인(天符印) 원리에 입각한 고유 무예(위대 택견 기능)
- 무예 역사와 전승 계보(삼성조 시대 - 북부여 - 삼국시대 - 일본 천황가 전래 - 신라삼랑 원의광(대동 택견 중시조) - 원정의(35대) - 덕담 최용술(36대) 환귀분주 - 한풀 김정윤(37대)) 명확한 전통 무예
- 한민족 정서에 녹아드는 우아하고 수려한 몸짓과 가장 방대하고 강력한 기술 체계를 갖춘 완전 무예(아래대 택견 기능)

3. 전수자 과정 개설 목적

- 단군 임검의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이념 실천
- 삼성조 시대부터 7세기까지 수련한 전통 태갈 수련법(위대 택견) 전수- 단군 임검 탄생역사에 나오는 환웅(桓雄)·웅녀(熊女)·신단수(神檀樹)·호(虎)·웅(熊)·애(艾)·신(蔞)·굴(窟)·백일(百日)은 인간이 신으로 중생하는 태갈 수련법이나 후대에 한자로 기록되면서 인수(獸)의 역사로 왜곡됨
- 조선시대 송문천무(宋文殿武) 정책과 일제의 민족혼 말살 정책으로 사라진 택견의 맨몸 기술 보강과 무기술 복원(아래대 택견)

4. 전수자 과정 모집 일정

- 주 최: 대동택견협회(협회장 신성준)·명지대 명상무예학과(우종웅 교수)
- 장 소: 명지대학교 미래관 6층
- 일 자: 2025.3.29.~6.14(12주) 매주 토요일 09:00~12:50
- 인 원: 선착순 10명
- 대 상: 체력훈련(힘)이 아닌 무예기법(기운) 원리를 익히는 수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 등 록: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 미래교육원 → 등록안내 → 전문교육과정 → 신규학습자 (원서접수 바로가기)
- 문 의: (02) 300-1816